

양서 발굴 소개야말로

출판의 질을 높이는 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김종심 위원장(60)은 언론인 출신이다. 1969년 동아일보 기자로 시작해 2001년까지 32년 동안 신문사 밥을 먹었다. 이 기간 중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논설실장으로 있으면서 '김종심 칼럼'을 연재, 혼란스럽고 급변한 한국사회를 향한 바른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월간〈신동아〉출판국 실장을 끝으로 언론계에서 퇴사하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온 지 3개월. 이같은 경력 탓인지 김 위원장은 출판일이 낯설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우리아 그렇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언론은 100퍼센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유를 누릴 때 중요해지는 것은 책임이죠. 출판 역시 규제보다는 출판인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출판인

이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애초 설립목적은 이념서적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진척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이념서적보다는 범람하는 음란·폭력물을 여과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때문에 여전히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노골적인 성묘사가 있을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주고받는다. 독자나 출판인들 입장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감시의 눈'으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다.

김종심 위원장을 비롯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항상 고민거리이다. 스포츠지, 주간지, 여성지, 사진잡지 등은 비교적 사회적인 공감대가 잘 형성되고 규제의 잣대도 명확한 편이지만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1991)나 서갑숙 씨의 《나도 때론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고 싶다》(1999) 같은 개인 창작물일 경우 항상 사회적인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나 '수정주의'나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음란물이나 폭력물은 한번 범위를 허용하면 물밀듯이 밀려들어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변화된 정서와 가치관을 외면하고 '근본주의'를 고수할 수도 없구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다른 심의기관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간행물윤리위원회 내부의 입장인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 등으로 인한 음란물의 급속한 확산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책자들 >>>



단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출판 쪽에서는 특히 만화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일본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만화에 묘사된 동성애의 경우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한다기보다 노골적인 성묘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열린 부천만화축제의 한 세미나에서 규제가 한국만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발표가 있긴 했지만 청소년들에게 쉽게 확산되는 만화의 경우 보다 긴장하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친일이나 이념에 관한 부분은 사회의 역량에 맡기고 있다. 얼마 전 일제시대 친일행위를 옹호한 한 출판물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독자들이 냉철하게 받아들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불문에 붙이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외 간행물 심의가 중요하고 자주 이슈화되기는 하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그에 못지 않게 '양서진흥' 과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발간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김종심 위원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일도 보다 많은 양서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이다.

“규제만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책임을 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을 권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가꾸는 일입니다.”

현재 양서 진흥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으로는 발행된 지 1년 내외의 도서를 대상으로 매분기 40종씩 추천하는 '청소년 권장도서' 와 1999년 6월부터

'전국민 책읽기 운동' 의 일환으로 발행된 지 3개월 이내의 책을 대상으로 매달 10종씩 선정하는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선정 등이 있다. 각 분야 전문가 10인 내외의 서평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소집해 서평도서, 청소년 권장도서, 이달의 읽을 만한 책 등을 선정한다. 또한 <간행물윤리>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이달의 읽을만한 책> <서평문화> <해외문화산업> 등을 발간해 무료로 발송해 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배포되고 있는 간행물의 디자인을 보다 세련되게 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후 우리 출판계의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힘과 지식의 경쟁력이 국운을 좌우하는 지식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가끔 서점을 가는데,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우리의 콘텐츠가 아직 풍성하지 않다는 게 항상 안타깝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자출판시대에 접어드는 데 대한 고민이 크다. 전자출판을 이용하는 계층은 자신(윤리위원회)과는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른 세대들이고, 종이출판을 심의할 때와는 또 다른 윤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급변하는 출판환경에 한 발 앞서 대응하려는 그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 같은 출판인으로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